

불교의 업 및 윤회사상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연구*

박 성 수

I

제임스 조이스는(James Joyce) 일반적으로 대단히 실험적이고 지나치게 형식을 중요시한 난해한 작가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은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삶에의 질서 추구 정신을 하나의 문학 사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삶에 뿌리박은 창작정신으로 구현한 대단히 인간적인 작가라고 하겠다. 근래에 들어 그에 대한 연구가 독자수용이론, 페미니즘비평, 그리고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에 의해 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그가 금세기 전반에 걸쳐 인간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작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¹⁾ 특히 그의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는 현대적 인간의 삶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Herring viii). 그러므로 그의 문학은 비록 주관적 관념주의의 산물이라는 일부 비평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적이고 원형적인 새로운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데, 그것은 그의 문학에 제시된 삶이 주관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객관적 실재와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타임(Time)지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작가로 제임스 조이스를 들고 있다. Time (Vol. 151. No. 22, 1998. 6. 22) pp. 48-9 참조. 한편 미국의 저명한 문예출판사 Random House는 20세기의 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소설로 『율리시즈』(Ulysses)(1위), 『짧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3위)을 들고 있다.

의 상호작용, 소외와 극복 그리고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의 차원을 획득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금세기 초의 19세기적 전통에 입각한 소설기법에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기풍을 도입하여 소위 문학에 있어서 모더니즘(Literary Modernism)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현재도 현대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항상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고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 언어구사와 담론(discourse)의 서술방식, 그리고 현실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 수용방법 등이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현금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에도 대단히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조이스 문학의 이해는 금세기 문학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모더니즘 문학뿐만 아니라 소위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한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조이스의 문학세계를 개관해 볼 때 자신의 문학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면서 조이스 문학의 근간이 되는 작품이 바로 『율리시즈』(*Ulysses* 1922)이다. 그러므로 조이스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이 작품에 구현된 그의 문학적 주제와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양극단을 피하고 아리스토텔레스식 중용(golden mean)의 인간적인 후덕함을 보이면서 그의 일탈적 희극(serio-comedy)의 면모를 보이는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과 비록 주관적 관념주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궁극적 모색을 계속하거나(블룸) 또는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하여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 하였다(스티븐).

휴 케너(Hugh Kenner)의 “20세기에 영어로 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2)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문학 및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이미 전통적인 텍스트 비평, 언어학적 접근, 역사 전기적 방법, 종교·철학적 또는 구조주의나 심리학적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부되고 분석되어져 왔다. 즉 그 동안의 조이스의 비평에는 현대 비평의 이론이 접근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최근의 최신 비평 이론까지 소위 서구적 사상의 모든 측면에서 조이스의 문학은 어느 정도 가능한 방

법이 적용되어졌으며 이 같은 경향은 다음 세기에도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적 덜 연구되어온 분야가 조이스 문학에 대한 동양 사상적 접근이고 그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불교사상 특히 업(Karma)과 윤회사상(Reincarnation)이다. 최근 서양세계에서 보여 주는 동양사상에의 관심과 그 동안 서구문학에 끼친 동양사상의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조이스 문학에서의 불교사상에 관한 관심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것은 그 동안 조이스에의 관심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주로 서구 사상적 입장에서 연구 되어왔으며, 『율리시즈』의 각 에피소드(특히 “서시”)에 산재해 있는 동양적 사상과 관련된 상징이나 언급을 단지 “비밀스런 무의미함”(esoteric nonsense)(Ellmann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간과하거나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저명한 조이스 평론가 휴 케너는 그의 『더블린의 조이스』(*Dublin's Joyce*)에서 『율리시즈』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불륨과 스티븐의 사고의 파편들이 보여주는 애처로운 불일치”(Kenner 209)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엘먼(Ellmann)은 “가장 평범한 상황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생애의 우스꽝스러운 긍정”(vi)이라고 언급하면서 주인공 불륨을 “영웅적이며 착하고 완벽한 인물”(30)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불교의 중용사상과 매우 연관이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율리시즈』의 문학적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불교사상과 관련된 암시나 주제는 소설의 주제적 구조를 통일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설의 서술 기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불교 사상은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스티븐과 불륨의 관계와 관련하여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부자 관계 및 미적 정체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또 이러한 요소는 릿츠(A. Walton Litz)나 엘먼의 지적대로 성격상 서로 대조되는 두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 의영웅시체(mock-heroic 혹은 mock-spiritual), 불일치(incongruity), 병치수법(juxtaposition), 또는 더 나아가 풍자(innuendo), 동음이의(pun), 풍자모방(parody)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의 희극적 효과(comic effect)와 예술적 목표를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율리시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불교사상의 실체는 무엇인

가? 광범위하고 심오한 불교사상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울리시즈』의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행동 윤리로서 ‘극단’을 피하고 ‘중용지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 철학사상으로서의 소위 업과 윤회사상이다. 이것은 『울리시즈』전편에 걸쳐 보여주는 불륜과 스티븐의 관념적인 부자관계의 확인과 불륜의 후덕한 인간미 또는 자신을 곧잘 잊는 자아망각 혹은 자아로부터의 도피현상에 잘 나타나 있으며 스티븐의 미적 정지상태를 중시하는 미학사상(Concept of Aesthetic Stasis)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울리시즈』전편에 걸친 불교 사상과의 관련요소들은 주제 전개에 있어서 구조적 형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이스의 담론 전개에 있어 수평적 구조 역할을 함으로써 조이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총체적 실체 구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이스의 문학세계와 관련하여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주는 불교사상과 관련된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관련성을 점검해 봄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이 조이스 소설의 철학적 의미를 깊게 하고 예술적 완성을 기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함을 보이고 그것이 조이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심각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serio-comic)’ 『울리시즈』의 목표를 완성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데 있다. 또한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와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본질적 갈등의 한 해소책이자 조이스 문학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로서 그의 소설 『울리시즈』에 구현된 그의 삶의 실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예술적 자아 형성과정과 불교의 업과 윤회사상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조이스 문학이해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러한 불교적 사상의 주체인 업과 윤회사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우선 인도의 초기 우파니샤드(Upanishads) 시대, 즉 불교가 일어나기 전 기원전 7-5세기경의 인도의 전통 사상인 브라만(Brahman 梵)과 아트만(Atman 我)의 개념을 파악한 후 이것이 어떻게 『울리시즈』에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우파니샤드의 중심적 개념의 하나인 아트만은 전에 호흡, 생기를 의미하던 말로써 초기 우파니샤드 무렵에는 개체의 본질을 의미하는 중요한 말

이 되었다. 그것은 객체화할 수 없는 주체로 파악되어 개체에 내재하는 보편자, 개체에 있어서의 불생 불멸의 존재로 이해되었다. 한편 브라마는 우주의 통일적 원리로서 본질적으로(梵我)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며 이것이 곧 소위 힌두이즘(Hinduism)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미니즘의 본질이다. 한편 또 하나의 우파니샤드 철학의 중심사상인 업과 윤회사상은 서로 상호 보존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위에서 언급한 브라마-아트만 일체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Embree 50).

원래 업이란 'action, deed, duty'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결정론적, 숙명론적 의미를 지닌다. 인생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행위(업의 행위)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행위는 하나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여력을 뒤에 남기게 되고 그 여력은 어느 지점에서 고, 락의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고락은 과거 업의 과보이고 현재의 업은 미래의 과보로 존재한다. 이렇게 업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생존을 규제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업이란 연속적인 존재 상황 중, 어느 한 상황에 있어서의 인간 행동의 총체이며, 다음에 올 운명(원인에 의해 결과를 수반하는, 그리하여 필연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엠브리(Ainslie T. Embree)는 『힌두교의 전통』(*The Hindu Tradition*)에서 인간이 이성적, 도덕적 우주 공간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업과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행동은 그 자체 필연적인 결과를 수반하기에 인간의 일생은 복잡다단한 모든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범위들의 하나로 보기에는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윤회는 무릇 각각의 행동들로 하여금 선 혹은 악의 당연한 대가를 수반케 하면서 우주의 엄격한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능하게 만든다. 업과 윤회라는 이 두 개념은 세상의 불공정,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1)

한편 브리하드 아라냐(Brihad Aranyak) 우파니샤드에서는 업과 윤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누구나 행동하는 대로, 누구나 실행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하게 된다...원하는 대로 결심 하게 되고, 결심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 그가 어떤 행동을 행하느냐에 따라 업이 결정된다. ... 욕망이 없는 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욕망이 충족된 자, 영혼이 욕망인자...그의 호흡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진실로 브라만이 될 때, 그는 브라만으로 가게 된다. (Embree 62-63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래 우파니샤드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낙천적 신앙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 인도인들은 윤회에 의한 현재와 내세의 연결, 그리고 재탄생에 의한 무한한 반복되는 생과 사의 업의 고리를 어떻게 단절하고 해탈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엠브리는 인간이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설명하면서 생, 사 그리고 재생의 고리를 넘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야 인간은 업으로부터 해방되고 범아(梵我)의 완성을 경험함으로써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엠브리는 이러한 상태를 “범아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초월한 존재의 상태”(64)라고 말한다. 정통 불교에서는 업, 윤회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간의 숙명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생존을 초월하는 스스로의 종교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동양사상 특히 불교와 관련된 언급을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최초의 조이스 비평가인 길버트(Stuart Gilbert)이다. 그는 『울리시즈』의 “칼립소” 에피소드에서 몰리 블룸(Molly Bloom)이 “metempsychosis”라는 말을 언급함과 함께 생명의 연속, 혹은 블룸과 스티븐이 보여주는 정신적 부자관계 탐색 등의 주제가 전통적 동양사상과 관련 있음을 지적하고(33-5), 조이스가 동양적 사고와 접촉하게된 단초를 당시 아일랜드 문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점신론(Theosophy)에서 찾고 있다.

“칼립소” 에피소드에서 블룸 부인은 침대에서 *Ruby: the Pride of the Ring*이라는 책을 읽다가 남편에게 “metempsychosis”라는 말의 의미를 묻는다.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블룸은 “윤회”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게 된다. 이후 “사이렌스”, “노시카”, “서시” 에피소드 등에서 이 말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면서 “metempsychosis”는 하루 종일 블룸의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식은 스티븐의 사고에도 항상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티븐의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의 실체”는 예술가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삶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4월 26일: 어머니는 새로 장만한 내 중고품 옷들을 정리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서 집과 친구를 떠나 사람 마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느끼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니는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지이다. 오라. 오 인생이여! 나는 현실의 경험과 수백만 번이라도 부딪히기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내 민족이 아직 창조하지 않은 양심의 칼을 버리기 위해 떠나가노라. (*A Portrait* 253)

신네트(A. P. Sinnett)는 『영혼의 성장』(*The Growth of the Soul*)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잠재하고 있는 사후 불멸지향 사상 및 재생과 윤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질계 안에서의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로 출발하며, 우리는 셀 수 없이 무수한 기억들, 감정들, 그리고 사고의 연상들을 상기시키는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영혼을 따르는데, 그러한 기억과 감정들은 본 문제의 인간, 인격을 이룬다(매체 수단인 육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어떤 것). 우리는 다음에 계속 될 인격이 영혼계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물질계를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기간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축적된 새로운 생으로 되돌아옴을 알게 된다. (Gilbert 34에서 재인용)

한편 불교사상을 포함한 동양적인 사고에 대한 조이스의 관심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그의 점신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 그가 태어난 후 3년 후에 더블린 점신론회(Dublin Lodge of the Theosophical Society)라는 점신론 단체가 결성되었고 성장과정에서 그는 이러한 주위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Campbell 166). 이는 그가 성장하면서 보이는 전통 가톨릭에의 거부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그의 가톨릭에의 거부가 점신론적인 사상의 전면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사상에의 강한 경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904년 노라(Nora Bernacle)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사회적, 정신적 격리예의 본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의 정신은 현재의 모든 사회적 질서를, 그리고 기독교를, 가정을, 인정된 미덕들을, 사회의 계급을, 그리고 종교적 교리들을 거부한다. 6년 전에 나는 교회를 증오하면서 떠났다. 나는 내가 기독교에 몸담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의 본능적 충동으로 인해 깨달았다. 학창시절에 이미 종교와의 비밀전쟁을 시작했고 종교가 내게 제공했던 입장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다. ...지금도 나는 내가 쓰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로 인해 종교와 공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Selected Letters* 25-6)

길버트도 조이스가 접신론(Theosophy)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조이스가 블라베트스키(Blavatsky)나 신네트의 책에 의해서 많은 지식을 터득했던 것으로 지적한다(Gilbert viii에서 재인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metempsychosis”로 대표되는 『올리시즈』에서의 조이스의 업과 윤회사상의 기본개념은 모든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며 모든 현존하는 존재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서 『올리시즈』의 두 주인공 스티븐과 블룸도 다른 모든 세대에서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궁극적 실체에 있어 정신적 부자관계라는 불가분의 존재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블룸과 스티븐 사이의 부성 확인의 주제는 이 소설의 3대 주제 중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바 있지만(Stuart Gilbert 57)²⁾, 실상 어떠한 근거에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살펴봐도 스티븐과 블룸 사이에는 공통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적, 정서적 가치 추구의 기준도 달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자 관계를 유추함에 있어서 당황하게 된다.

물론 여러 곳에서 블룸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루디(Rudy)의 대신으로 스티븐에게 부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 스티븐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블룸의 부성적 애정을 실제로 받아 들이느냐하는 문제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두사람을 부성 추구하고 확인이라는 주제로 묶어 줄 수 있는 어떤 소설적 공통점을 발견할 필요성을 느낀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업과 윤회 사상이다. 전편에 걸쳐서 이들 두 주인공의 행동과 사고에서 볼 수 있는 불교, 철학적 신념들이 이들 관계를 정당화 시켜

2) 『올리시즈』주제로서 평자들은 보통 부성 추구(paternalism)에의 주제, 부부 부정(marital infidelity)의 주제, 그리고 물질주의 추구(money making scheme)주제 등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주요, 이들 사이에 내재하는 정신적 부자 관계의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불교의 업과 윤회의 사상은 『율리시즈』에서의 블룸-스티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이 소설의 미적, 소설적 구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해 줌으로써 이 소설의 예술적 완성을 한층 더해 준다는 것이다.

많은 평자들은 『율리시즈』의 소설적 구조에서 볼 때 블룸-스티븐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의 관계가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 관계의 완성이 소설의 완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자관계로서의 만남이 호머(Homer)의 율리시즈(Ulysses)-텔레마쿠스(Telemachus)구조와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블룸의 의식은 처음부터 11년 전의 아들의 죽음과 현재 부인의 부정에 의한 억압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는 항상 태어난지 11일 만에 죽은 아들 루디를 생각하고 있으며 “칼립소”장에서 지금 살아 있다면 열한살이 되는 아들을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룸은 자신이 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아들을 추구하게 된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피를 받고 있는 블룸은 자신의 후계자의 부재를 메꿀 수 있는 대리 아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 스티븐은 현실적 갈등과 자신의 본성에 잠재한 어떤 신비적, 기질적 이유로 해서 친부를 거부하고 좀 더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부친을 갈구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바처럼 스티븐은 『율리시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현재의 구속을 야기한 생물학적 부친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부성을 추구하고자 방황한다. 즉 스티븐에게는 자신의 “non-servian”적 태도나 성경적 의미(Honor thy father)에서의 부성에의 복종을 거부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성관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비록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환경은 다르지만, 이러한 서로 상이한 환경을 넘어 이 반항적 예술가와 소시민적 광고업자 사이를 부성으로 연결해 주는 존재론적 근거를 바로 업과 윤회의 불교적 사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접한 관련의 두 개념은 표면적으로 단순히 상징적 부자 관계로만 머물 수 있는 이들 두 사람의 관계에 존재적 믿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주인공이 보여 주는 서로 상반된 성격적 특징 즉, 블룸의 자기 만족적, 감상적 성격과 스티븐의 냉소적, 비판적 성격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불일치, 냉소적 야유 또는 아이러니를 중화시키는 ‘심각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serio-comic) 효과를 연출한다. 이러한 효과는 소설

적 구조를 다양하게 함과 아울러 즐거움, 공감, 냉소, 비난, 비평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Joyce는 이를 위해 “의영웅시체(mock-heroic), 불일치(incongruity), 병치(juxtaposition), 아이러니(irony), 과장(hyperbole), 변형(transmogrification), 풍자(innuendo), 애매한 표현(ambiguity), 풍자모방체(parody)” 등을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효과를 현세의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구분을 초월하는 존재론적 실재(reality)를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과 주제로써 사용하며 이것은 곧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이 추구하는 바인 것이다.

III

이러한 업과 윤회 사상이 『율리시즈』에서는 조이스에 의해 자신의 예술적 목적에 맞게 적절히 변형되어 제시된다. 즉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 속에 직,간접적으로 투영하여 이 두 사상이 포괄적이면서, 또한 그가 『율리시즈』에서 노린 심각하면서도 코믹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블룸의 아내 몰리는 *Ruby: The Pride of the Ring*이라는 외설책을 보면서 “metempsychosis”라는 말의 의미를 묻는다.

—머뭇썬코우스스?

—그래요. 그 남자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예요?

—윤회(輪廻), 하고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그리스말이지: 그리스말에서 온 거요. 그것은 영혼의 전생(轉生)이란 뜻이야.

—오. 젠장! 하고 그녀는 말했다. 쉬운 말로 말해 줘요.

재생: 그것이 합당한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하고 그는 말했다. 즉 우리가 사후에도 또 다른 육체 속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도 살았었다는 거요. 그것을 사람들은 재생이라 부르지. 우리들 모두가 수천년 전에 지구상에 아니면 어떤 다른 유성(遊星)에 살았다는 거요. 우리들이 그걸 잊고 있다는 거지. 그들의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소.

(*Ulysses* 52-3)

그녀는 그것을 ‘met him pike hoses’라고 발음함으로써 심각한 종교적 주제를 외설적 주제로 병치시키고 있다. 또한 불륨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힌두이즘(Hinduism)에 알려진 전통적 윤회의 개념을 “punarjanam”(510)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한편 도란(Doran)의 하숙집을 지나면서 그는 맹인 소년에게 “불쌍한 녀석. 정말 비참해. 그 녀석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그래도 보지 못하지. 인생은 그에게서 꿈일 뿐이야.”라고 말하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태어나는 정의는 어디 있지?”(182)라고 신의 정의와 도덕에 관해 자문한다. 이 문제에 대해 그의 종교적, 사회적 배경은 서양식, 합리주의 식의 대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날 아침 *Freeman's Journal*에서 본 기사를 떠올리면서 이 모든 비극을 동양적 사고 방식에 의해 그 소년이 겪는 고통을 업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뉴욕에서 소풍 나갔다가 불에 타죽고 물에 빠져 죽은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 전번제(全幡祭). 과거의 생애에 있어서 인생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저 전생(轉生)을 사람들은 갈마라고 부르지 재생 즉 윤회인 거야. (149)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업의 고리에 대한 불륨의 생각은 “서시” 에피소드에서 세 사람의 창녀를 만나고 난 후 불륨이 “그러나 내일은 새 날이고 밝아 오지요. 과거는 지난 날의 오늘이죠. 현재가 어제가 지나서 된 것처럼 또한 현재는 그래서 내일이 되는 거죠.”(420)라고 하는 말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면서 도처에 존재하는 업의 인과응보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그는 단절할 수 없는 현재와 과거의 연속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간에 대한 심각한 인식도 불륨이 보여주는 창녀나 조부 비라그(Virag)와의 대화에서 보이는 세속적 견해와 함께 제시됨으로서 승고한 것과 저속한, 그리고 심각함과 익살맞음이 함께 병치된다. “승고하다는 것과 조롱 받는다는 것은 단지 한 발짝 차이에 지나지 않아”(515).

“이타카” 에피소드에서 불륨은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고리를 경험하고 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등장한다. 그는 “아무나이거나 혹은 아무도 아닌 사람”(Everyman or Noman)이다.

어떠한 공물(貢物)을 그는 받을 것이었는가?

모든 사람의 친구들인 미지(未知)의 사람들의 존경과 선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신부인 불멸의 요정. 미녀.

...

그는 영원히 방랑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 . 그는 어느덧 재생하여 카시오페이아자리의 삼각주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리니 . . . 그리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방랑 생활을 겪은 위 한 사람의 배신당한 복수자. 한 사람의 악인들에 대한 정의의 집행자. 한 사람의 복수자. 한 사람의 이름없는 십자군 전사(戰士). 한 사람의 잠에서 깨어난 수면자(睡眠者)로서. 되돌아 오리라. (598)

여기서 “아무나 이거나 아무도 아닌”은 불륨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업의 일반적 법칙이다. “아무나”로서의 불륨은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업의 법칙의 대상이다.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불륨은 브라만과 일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을 벗어버리는 존재다. 이로 인해 불륨은 적에게 복수하고 페네로프(Penelope)를 되찾는 호머의 울리시즈로 탄생한다. 그는 윤희의 고리 속에서 자신의 업을 치르고서야 브라만 즉 대우주의 영과 일치하는 자아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불륨이 보여주는 실재와 환상 속에 놓여있는 심연이 곧 조이스가 원하는 바 ‘심각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serio-comic)’효과를 위한 것이며 조이스는 이 건널 수 없는 심연의 깊이를 ‘과장(hyperbole)’이나 ‘의영웅시체’(mock-heroic) 등의 수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에게 있어서 업과 윤희에 대한 이해는 그의 샌디마운트(Sandymount) 해변에서의 명상이 계속되는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복잡하고, 신비적이며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기원과 우주에서의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명상하는데 업과 윤희의 법칙을 인간의 영원한 존재이유로 이해함으로써 잠깐동안이나마 세속적 부성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

오랜 세월 전부터 하느님은 나에게 뜻을 품고 있었고 그리하여 이제 아니 영원히 나를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렉스 에페르나(영원의 법칙)’는 하느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이 친부(親父)와 친자(親子)가 동질이라는 성스러운 본질이란 말인가? (32)

길버트는 이 렉스 에페르나가 신비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업의 법

칙이라는 것이다(46). 물론 그가 지적인 “He”는 창조주로서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신에 의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업의 법칙에 의해서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배정되어졌다는 것이다.

스티븐의 업의 법칙에 대한 인식은 모든 존재의 합일성과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연속성을 강렬하게 깨달은 모습에서 잘 드러나 있다. “프로테우스”의 후반부에서 그는 오히려 업과 윤회의 사상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일종의 음울한 유머가 담긴 퇴폐적 순환의 고리에 자신의 존재를 존속시키는 구절을 읊조린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따개비 기러기가 되고 깃털 포단(蒲團)의 산이 된다. 살면서도 나는 죽은 자의 숨을 쉬고 있는 것. 사자(死者)의 회진(灰塵)을 밝으며 온갖 사자들로부터 오줌 냄새 나는 찌꺼기를 맛있게 먹는다. (41-2)

조이스는 업과 윤회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 두 문장에서 불륜의 경우에서처럼 항상 “숭고한 것”(the sublime)과 “천한 것”(the vulgar)과의 혹은 재생과 파괴와의 아이러니컬한 대조로써 제시한다. 스티븐은 신의 다양한 변신의 모습에서 순환론적 존재론과 소위 우주정신(anima mundi)라고 불리며 신 혹은 브라만과 일치할 수 있는 철학적 가능성을 읽은 반면에 그는 또한 ‘죽은 숨결’ ‘죽은 먼지’ 혹은 ‘냄새나는 쓰레기’에서처럼 그가 벗어나고자 하는 과거의 업에 대한 자신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태양신의 황소들” 에피소드에서는 업과 윤회의 법칙이 좀더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벅 멀리건(Buck Mulligan)은 레오폴드 불륜으로 짐작되는 이방인과 그가 주목하고 있는 포도주의 빨간 상표에 레너한(Lenehan)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벅 멀리건과 스티븐은 다음과 같이 아이러니와 회의가 가득한 대화를 나눈다.

그의 영혼은 멀리 가 있어. 하나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난다는 것은 아마 태어나기만큼 고통스러운걸 거야.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신들의 불멸의 영겁(永劫)에 접근하는 문이 될 수 있지. 자네 그렇게 생각지 않나. 스티븐? 그런데 전세(前世)에 있어서 이집트의 승려들이 인과응보 법칙의 신비를 전수(傳授)했던 테오소포스가 내게 그렇게 말했지 하고 스티븐이

대답했다. 달(月)의 군주들은. 테오소포스가 내게 말했지. 태음계(太陰系)의 유성 알파로부터 배에 실려 온 오렌지빛을 한 화염이지만 에테르성(性)의 원령(怨靈)의 기질을 띠지 않을 것이므로 따라서 이들은 제2의 성좌로부터 루비 빛의 자아에 의하여 육체를 부여받았던 것이라고. (340)

즉 멀리건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체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같은 원소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한다. 신네트는 자연의 생성 법칙은 너무나 완벽해서 세속적 의미에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존재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미세한 존재나 거대한 존재에나 똑같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사들은 너무나 팽팽하게 뒤얽혀 있어서 모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모두가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즉 아주 하찮은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은 자연 발생적이며 필연적인 것임에 틀림없거나, 혹은 어떠한 사건들에도 이미 정해진 과정이 없다는 것이며, 어떠한 규칙적인 업의 작용도 없다는 것이다. 운명의 법칙, 인과율의 적용은 비전(秘傳) 교리의 핵심원리이다. (Gilbert 45에서 재인용)

“서시”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자신과 린치의 모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업과 윤회의 사상에 대한 탐구를 플라톤(Plato)의 대화론을 연상시키는 “너의 지식은 어느 쪽으로 튀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모자

(침통하게 불끈 화를 내며) 흥!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여인의 논리지. 유대계(系) 그리스는 그리스계 유대란 말이야. 양극단(兩極端)은 만나게 마련이지. 죽음(死)이 생(生)의 최고 형식이야. 흥!

스티븐

너는 나의 모든 과오. 자만. 잘못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 그래.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너의 불성실(不誠實)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할까? 이 숫돌 같은 놈아?

...

스티븐

(영동하게) 그것은 그 자체를 횡단하지 않고 세계의 끝까지 나아갔던 거야. 하느님. 태양. 셰익스피어. 외무사원은 그 자신이 실제 그 자신을 횡단했기에. 그 자신이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요. 경철 거리의 그 녀석 소리. 그것은 그 자체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도록 미리 짜여져 있던 자식이야. ‘에코(보라)’. (411-2)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스티븐이 언급하는 ‘숫돌(whetstone)’의 의미이다. 기포드에 따르면 ‘숫돌’은 젊은 예술가 스티븐의 지적 친구인 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는 이전에 멀리건과 크랜리를 무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린치를 무시하고 있다(Gifford 199-200).

모자는 스티븐의 상상 속에서 형성된 자신이 깊은 자아를 의미하며 “Saturnine spleen”은 소설 속에서의 스티븐의 마음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죽음은 가장 높은 경지의 인생의 한 형식이다.”란 말은 순환론적 인생관에 입각한 업의 법칙을 나타내는 말로서 끊임없는 인생의 과정은 죽음에 의해서 종말을 맺으나 죽음은 현재의 삶의 업적 종결을 의미하면서 인생의 가장 숭고한 단계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에서 스티븐이 언급하는 신(God), 태양(the Sun), 셰익스피어(Shakespeare), 외판원(commercial traveller)(블룸을 지칭함)은 모두 서로 일치하는 존재들로서 “그 자신”, “그 친구”, “자아”는 모두 우주적 자아 즉 모든 인간이 동일시하는 존재로 해서 힌두사상에서는 바로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인식의 관계를 거치면서 모든 존재가 아트만과 브라만이 적극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조이스는 여기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존재에 대한 명상을 회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시하는데 신, 셰익스피어, 그리고 태양과 외판원인 블룸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에게 신은 단지 “거리의 시끄러운 친구에 지나지 않는”(505) 것이다.

IV

앞에서 살펴본 바 스티븐과 블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업과 윤회의 법칙의 좀 더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즉 그들 두 사람의 사고에 존재하는 부성확인의 과정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업과 윤회가 완성하게 되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의 초반부에서는 스티븐이나 블룸은 서로에게서 직접적인 관계가 뚜렷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서로는 제 삼자와의 또 다른 부자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즉 블룸은 잃어버린 자식 루디에 대한 그리움과 스티븐은 생물학적 부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태양신의 황소들”에서 스티븐을 만난 이후 블룸은 의식적으로 스티븐을

쫓아가고 결국 “서시” 에피소드에서 그의 부성을 보여주며 “이타카”에서 최종적으로 정신적 부자관계를 확인한다.

스티븐의 정신적 부성추구와 생물학적 부자관계 거부는 『울리시즈』보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더 구체적이다. 아버지와의 코르크로의 여행은 스티븐의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데, 이후 그와 아버지 사이 먼 디덜러스와의 심리적 심연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한다.

아버지와 두 친구가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건배를 들 때 스티븐은 세계의 술잔이 술상에서 올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명의 간극 아니면 기질상의 간극이 그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보다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대지 위에 비치는 달처럼. 그의 마음은 그들의 갈등과 행복 그리고 후회를 차갑게 내리비쳤다.

...

그는 자신의 쓸모 없는 고립을 또한 명확히 보았다. . . 그는 그들과 거의 한핏줄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이며 의형제라는 불가사의한 친족 관계로서 그들과 맺어 있다고 느꼈다. (96-8)

우리는 여기서 윌리엄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라는 아이러니컬한 시귀를 연상시키는 스티븐의 심정을 보게되는데 그것은 곧 업과 윤회의 개념을 상기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아들(스티븐)이 아버지보다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것은 아들이 윤회의 법칙에 따라 이미 여러 번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이 결과 정신적으로 아버지보다 훨씬 성장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스티븐이 니르바나(Nirvana) 즉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스티븐의 윤회의 법칙에 대한 이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오라, 오 인생이여! 나는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내 민족의 아직 창조하지 않은 양심의 칼을 버리기 위하여 떠나가노라.”(253)라고 외치면서 “옛 아버지시여, 옛 장인이시여”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탁하는 순간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정신적 부성 탐색의 화두는 늘 그의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데 『울리시즈』의 첫 부분에서 미래의 의사인 벅 멀리건은 하인즈(Haines)에게 “그는 대수(代數)를 써서 햄릿의 손자는 셰익스피어의 할아버지이며 그 자신은 아버

지의 혼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네.”라고 말하자 Haines도 “나도 어디선가 이 이야기에 관한 신학적인 해석을 읽었어하고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친부(親父)와 친자(親子)의 개념 말이야. 친자가 친부에게 속죄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야.”(15-6)라고 대답하면서 부성확인의 문제를 언급한다. 포티우스(Photius), 아리우스(Arius) 및 발렌타인(Valentine)등의 예수와 하느님과의 성부 일체에 관한 대화는 스티븐에게서 자신의 근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곧 인류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 탐색과 진정한 부성을 확인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나타난다.

“프로테우스” 에피소드에서 샌디마운트해변가를 걷는 스티븐은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적 현상세계로서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샌디마운트 해변을 따라 영원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신비주의적 질문을 한다. 이때 만나게되는 두사람의 산모가 가진 가방 속의 물건이 태아의 탯줄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곧 힌두-불교(Hindu-Buddhist)적 신앙에서 탯줄은 인간의 존재를 태초의 부모와 모든 세계의 인간과 연결해주는 윤회의 고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모든 선조들과 연결하는 노끈이요. 모든 육체를 결합시키는 밧줄인 것이 다. 그 때문에 비교파(秘敎底)의 사제들이 존재하지. 너회는 신(神)들처럼 되고 싶은가? 너의 ‘옴파로스(배꼽)’를 눈여겨 들여다보라. 여보세요! 여긴 킨치 올시다. 에덴빌을 좀 대주세요. 알레프. 알파: 0.0.1요

에덤 캐드먼의 신부(新婦)며 조력자: 해바, 나체의 이브, 그녀는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눈여겨서 잘 봐요. 통(桶)처럼 부푼, 티 없는 배(腹), 독피(獨皮)를 팽팽하게 늘여 만든 둥근 방패. 아니 동방(東方)과 불멸의.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는 쌓아올린 하얀 곡물더미. 죄의 자궁(子宮). (32)

한편 이 장면에서는 조이스가 소위 심각하면서도 코믹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병치(juxtaposition)의 방법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헬로, 킨치. 여기야.”라고 응대해 소위 고대 힌두 사상에 의한 태초의 사상과 연결시켜주는 “탯줄”을 마치 현대의 전화처럼 사용하여 에덴빌이라는 인류의 원초적 고향(Eden을 연상시키는)과 통화한다. 길버트는 이것을 “배꼽이 예언적 힘의 중심이라는 동양적 믿음의 현대화.”(Gilbert 53) 라고 지칭하면서, 스티븐이 태초의 부족 모든 세대의 인간 혹은 소위 우주의 통일 진리인 브라만과의 직접 교류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생물학적 부자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어떤 확정적이고 정신적인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정신적인 유대는 이미 윤리이전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티븐은 아담 캐드먼(Adam Kadman)과 헤바(Heva)와의 정신적 부자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그가 짊어진 생물학적 부자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속박을 뛰어넘어 예술가에게 필요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정신적 부자관계를 추구한 후 업과 윤회를 통해 인간존재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한 것이다.

블라베트스키는 이 단계에서의 “부성의 주제”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고대 문명인들(그리스, 로마인들)은 인간의 성령... 인간의 자의식을 중요 시했다. 브라만들(인도의 승려계급)은 이러한 믿음을 플라톤이나 그 외의 철학자들과 함께 했다. 그 중심은 내재된 성스러운 빛의 자리인 태양의 궤도로서 간주되었다. (Gilbert 51)

힌두사상에서는 이렇게 인간 본질에 대한 지식을 통해 아트만(我)은 브라만(梵)과의 합일을 이룰 수 있고 업과 윤회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프로테우스”에서의 스티븐의 부성확인의 주제가 종교적이고 신비적 양상을 띄고 있는 반면에 “스킬라 & 사리브디스” 에피소드에서는 문학적 양상을 띄고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하게 전개된다. 스티븐은 친구들과 함께 더블린 국립도서관 앞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도중, 그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전기적 해석을 옹호하면서 햄릿(Hamlet)의 존재를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그는 유령이며, 이제는 하나의 그림자요, 엘시노어의 바위나 혹은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에나 붙어대는 바람, 바다의 소리, 그의 그림자의 본질인 자. 부친과 동질의 육체를 가진 자식의 심장 속에만 들리는 한가닥 소리지요. (162)

여기서 우리는 스티븐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부성(paternity)에 대한 이견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햄릿이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에 따르면 창조주 신(the God)

과 예수 그리스도(the Son), 그리고 성령(the Holy Ghost)은 하나의 동질적 존재이면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와 신은 창조의 과정에서 그들의 피조물들(태양, 행성)의 일부가 됨으로써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창조주이자 예술가이자, 또한 시인이다.

조소자(嘲笑者)의 무리: 포티우스, 거짓 말라기, 요한 모스트.

신(神)은 자신이 매개자(媒介者)인 성령을 낳았고 그리하여 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죄자로서 이 세상에 보냈다. 신 자신과 인간 사이에, 그리하여 속죄자는 신의 악마들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하여, 공간 문의 박쥐처럼 못박혀, 십자가에서 아사(餓死)당했다. 신은 자기 자신인 속죄자를 매장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고, 지옥을 정복케 하며, 천국으로 인도되어 거기서 지금까지 1천9백년 동안 신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지만 그는 모든 산 자가 이제와 죽은 자가 될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후일에 다시 나타나리라. (162)

위에 따르면 스티븐은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현현(Epiphany)시키지만 본질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통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것은 바로 힌두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전통적 힌두사상에서 브라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개인 아트만과 일치하며 단지 개인은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자신과 브라만이 동질체이고 모든 가시적 현실은 브라만의 모습임을 인식할 때까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창조물과 일치하여 결국 햄릿, 존 앤 윌리엄 셰익스피어(John and William Shakespeare) 모두 하나의 토대라면 서로가 현실과 다른 부자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블룸과 스티븐은 정신적으로나마 동질체적으로 하나이며 또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블룸은 『율리시즈』의 여기저기서 진정한 자식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셰익스피어, 신과 같은 존재로 파악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스티븐의 대리부친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스티븐 역시 업의 법칙에 따라 이와 같은 블룸의 정신적 부성확인에 조용하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부성확인의 의미는 자신을 둘러싼 전통, 과거, 문학적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곧 브라만-아트만의 일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윤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자아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불륨의 새로운 정신적 아들에 대한 욕망은 태어난지 11일 만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는 “칼립소”장에서 지금 살아 있다면 11세가 되는 아들 루디를 생각하며 이 상황에서 불륨은 자신의 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추구한다. 우연하게도 이 상황은 “텔레마쿠스”장에서 스티븐이 정신적 부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장면과 일치한다. 그날 아침 불륨은 자신의 딸 밀리에게서 생일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는데 이 것은 곧 밀리와 루디의 해산을 도와주었던 손튼여사(Mrs. Thornton)에게로 의식이 이어지고 루디가 탄생할 때 자신이 가졌던 무의식적 사고를 회상한다(66). 남편, 가장,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루 종일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아내와 딸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아들이다. 정신적 아들 추구를 향한 그의 의식은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구체화되고 강해진다.

패디 디그냄(Paddy Dignam)의 장례식에 가는 도중에 스티븐 디덜러스를 처음 보는 순간 곧 친구이자 아들,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사이먼 디덜러스의 아들 스티븐이 자신의 부친과 부자지간이 원만하지 못함을 알아차리는데 이것은 곧 루디에 대한 부성이 스티븐에게로 향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만일 귀여운 루디가 살아 있다면 그가 자라나는 것이 눈에 선하군.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데. 이튼 제복을 입고 물리 곁에 걸어간다. 나의 아들. 그의 눈 속에 비친 나. 얼마나 이상한 생각일까. 나에게서 나온. 참 우연한 일이지. 틀림없이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 아내가 레이먼드 테라스의 창가에서 소변 금지라고 써 놓은 벽 곁에서 두 마리의 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때 경사(警査)가 이빨을 드러내며 싱긋 웃고 있었지. 아내는 크림 빛깔의 가운을 입고 있었지. 그런데 그녀는 터진 곳을 결코 껴매지 않았어. 조금만 터치해 줘요. 폴디. 정말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시작되는 거다.

그때 임신했었지. 그레이스톤즈의 음악회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녀석에 있는 나의 아들. 살아 있었더라면 자립할 때까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있고말고. 그에게 자립정신을 길러 주는 거지. 독일어를 가르쳐 주고. (73-4)

한편 불륨의 스티븐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상적 생각은 실제 생물학적 부친인 사이먼의 세속적 정서와 대조되어 제시되는데 이것은 불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 루디의 출생에 대한 배경으로 물리가 루디를 임신하기 직전 거리에서 교미하는 개를 보고 일으킨 이상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며, 이것은 우리가 블룸의 심각한 정서를 알면서도 그의 엉뚱한 생각에 한편으로 웃음을 터뜨릴 정도의 희극적 효과를 자아낸다. 블룸의 “부성”(paternity)은 “에이얼러스” 에피소드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스티븐이 신문사 편집장인 마일즈 크로우포드(Myles Crawford) 등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실제 아버지 같은 걱정을 한다(Blamires 155).

그 짧은 디털러스가 마음이 돈 게 이상스러워. 오늘은 좋은 구두를 한 켤레 신고 있군. 지난번에 내가 보았을 때는 발 뒤꿈치가 다 드러나 뵈던데. 어딘가 진흙투성이 길을 걸었나봐. 무관심한 녀석이야. 아이리쉬타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20-1)

“스킬라 & 사리브디스”에서 스티븐은 블룸에 의해 지난날의 꿈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은 코믹하면서도 블룸이 미래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꿈에서 블룸이 스티븐에게 메론을 대접하게 되는데 길포드에 의하면 최초로 얻는 과일을 사제를 통해 신에게 헌공되는 헤브루(Hebrew)인들의 관습이며(Gifford 43) 그것은 곧 블룸이 신 또는 신부같은 스티븐에게 주인이 가장 잘 익은 메론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물리의 유방을 상징하는 속된 암시이기도 한 것으로 신성한 제물과 속된 암시를 동시에 병치하는 조이스의 고유한 수법이다.

하룬 알 라쉬드(Haroun Al Raschid)는 바그다드(Baghdad)의 성주로서 사랑과 쾌락, 학문과 예술을 갈망하는 유대인인 레오폴드 블룸이 아랍화한 인물이다. 이미 “태양신의 황소들”에피소드에서 블룸은 퓨어포이(Puerfoy)부인이 치르는 산고를 위로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한다. 여기서 블룸과 스티븐은 파티석상에서 예기치않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블룸의 의식을 하루 종일 지배하는 부성확인의 주제를 좀더 분명히 하게되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 재생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Gilbert 285).

조이스는 프랭크 버전(Frank Budgen)에게 보낸 편지에서 “태양신의 황소들”을 언급하며 블룸을 정자에, 병원을 자궁에, 간호원을 난자에 그리고 스티븐을 태아에 비유한다(*Selected Letters* 252). 여기서부터 블룸은 자신이 탐색해야 할 대상중의 하나인 정신적 아들을 추구하는데 이미 죽은 루디와 스티븐 사이에서 느끼는 그의 과장된 감정은 거의 희극적 감상적 지경에까지 이른다. 다음은 이러한 블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자신들의 산고(産苦) 속에서 부르짖는 여인들의 무서운 절규에 대한 연민을 아직도 갖고 있었거니와 태어난 지 열하루 되던 날 죽어 간 단 하나의 남아를 그에게 낳아 준 그의 선량한 부인 마리언에 관하여 회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니. 그리하여 어떠한 의술을 가진 사람도 그를 구할 수 없었으니 암담할손 운명이라. 그리하여 그녀는 저 재난(災難) 때문에 극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니 그의 매장을 위하여 그가 완전히 부패하여 없어지거나 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도록 털의 꽃이라 일컫는, 양모(羊毛)의 아름다운 코르셋을 그에게 입혀 주었던 것이니(웬고 하니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이로다.) 그리하여 이제 자신의 혈육(血肉)으로 상속자가 될 사내아이를 갖지 못했던 리오폴드 선생은 그의 친구의 자식인 그를 바라보았나니 그의 지나가버린 행복에 대하여 슬픔 속에 잠겨 있었나니 그리하여 그는 그와 같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들들(웬고 하니 모두들 그가 참된 재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저버렸음을 슬퍼하듯 그에 못지않게 젊은 스티븐을 애석히 여겼나니 웬고 하니 그는 저따위 불량한 놈들과 난폭하게 지내며 그의 착한 성질을 매음녀들과 함께 말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로다. (320)

아들을 박탈당한 블룸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동안 정신적 부친을 추구하는 스티븐은 자신의 근원적 태생에 대한 연설을 하게되는데 스트랜드 해변에서 시작된 부성문제는 머더너티 병원(Maternity Hospital)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된다. 그는 순결한 임신을 한 제2의 이브를 찬양하면서 인류의 근원적 모성인 이브와 병치시킨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인류의 탄생기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듯이 제2의 이브인 마리아가 우리들을 구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오. 아니면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소. 내가 말하는 제2의 그녀 말이오.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창조물의 창조물, 즉 ‘베르기네 마드레, 피글리아 디 투오 피글리오(동정 어머니시여, 당신 아들의 따님이시여)’든지, 아니면 그녀가 그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잭이 세운 집 속에 살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모든 불행한 결혼을 행복으로 계승시킨 수호성자인 목수 요셉처럼 부정(否定)하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오. . . . 그것이 전질변화(全質變化) ‘엔트베데르(이든)’ ‘오데르(아니면)’ 동일실체성(同一實體性)인 것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자독(自漬)이 아닌 것은 확실하오. 그리하여 이 말에 모두들 부르짖었나니 정말 아비한 말이로다. 환희 없는 잉태, 하고 그는 말했도다. 고통없는 탄생, 흠 없는 육체. 부풀어오르지 않는 배란 말이오. 음탕한 자로 하여금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내버려두오.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거역할지어다. 정녕코. (391-2)

스티븐의 이브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그녀가 미지의 세계를 알고자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로 영원히 낙원에서 추방되었다는 기독교 신학적 믿음을 거부한다. 실상 그에게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신학적 이유는 부조리하고 심지어 회극적이기 조차하다. 창세기 신화에 대한 그의 거부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시작되는데 스티븐은 인간의 타락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당한 우주의 원리와 임의의 논리에서 인류를 타락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스티븐의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신학적 믿음이 이러한 이유로 곧 자신과 생물학적 부자 관계를 부인하고 업의 법칙(Karmic Law)에 따른 부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성모 마리아(Virgin Mary)는 예수의 딸이며 그녀는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모른다. 즉 이 사실은 스티븐의 아버지가 실제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대한 스티븐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성모 마리아, 아들(예수) 그리고 성부(신)와의 관계는 곧 물리, 스티븐 그리고 블룸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블룸이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스티븐의 아버지라면 물리는 그의 어머니(이브)이자 또한 성모 마리아이다(Tindall 225-6). “프로테우스”장에서 이미 스티븐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추구하였으며 꿈속에서 아담의 모습을 한 블룸과 그의 아내를 만난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진과 블룸의 상상을 통해서 이브나 성모 마리아같은 물리를 만나게 된다. 또한 그는 업의 원칙에 따라 부자관계에 있어서 물리적 관계는 중요치 않으며 연대기적 공간적 한계 내에서의 관계가 아닌 정신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다

블룸의 부성은 천둥과 번개에 놀란 젊은 스티븐을 진정시키는 장면에서 확실히 들어난다. 조이스의 소위 “심각한” 문체의 설정으로 보여지는 다음 장면은 블룸의 부성과 스티븐의 태생적 부성의 거부를 동시에 보여주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티븐에 대한 보호적이며 사려깊고 애정어린 천성적인 자비, 사랑, 부성의 상징이 아닌 자연스러운 존재로서의 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이곳 가로(街路)에 깨어지는 듯한 한 가닥 압당한 소리가, 아 놀랍게도, 외쳤다가 되돌아갔도다. 왼쪽으로 소리 높이 뇌신(雷神)이 천둥쳤던 거로다: 무서운 분노로 쇠망치를 휘두르는 자가. 간담을 서늘케 하는 폭풍우가 방금 다가왔는지라. 그러자 린치 학사가 코스텔로에게 지옥에라도 떨어질 그의 지절여대는 목소리와 이단적(異端的)인 말씨 때문에 하느님이 친히 골 나셨는지라 조롱과 야비한 변통수(變通數)를 삼가도록 그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러자

처음에 그렇게도 대담하게 도전하던 코스텔로도 다른 사람의 눈에 떨 정도로 얼굴이 밀춧빛으로 창백해지며 몸을 움츠렸나니 이전에는 그렇게도 오만하게 맹위(猛威)를 떨치던 그의 기세도 이제는 갑자기 꺾였으되 그리하여 저 폭풍의 소음(騷音)을 맞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새장 같은 그의 가슴속에서 떨렸던 것이로다. (323)

블룸이 “누가 말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부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말은 스티븐이 도서관 장면에서 모성과는 달리 부성은 불확실성에 기초한다는 회의를 연상시키며 우리들 모두에게 진정한 부성애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들 블룸과 스티븐에게 서양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인연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정신적 부자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업과 윤회의 법칙인 것이다.

V

블룸과 스티븐과의 사이에 작용하는 부성확인의 주제와 관련하여 업과 윤회의 법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서시” 에피소드에서이다. 두 병사에게 맞고 벨라 코헨(Bella Cohen)에서 쫓겨나는 스티븐을 따라나서며 블룸은 스스로 “내가 왜 그를 쫓아가지?”라고 자문하나 그는 곧 “아직도 그는 큰 행운이야. 내가 퓨어포이 부인의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가서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 운명이야. 그는 곧 현금을 잃어버리겠지.”(452)라고 답하면서 스티븐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Kismet을 자각한다. Kismet은 OED에 의하면 ‘운명’ 혹은 ‘운’를 뜻하며 이것은 곧 업과 같이 현재의 생을 결정하는 운명 혹은 전생의 업이다. 일부 지식인들은 업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Kismet을 운명론적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블룸이 스티븐을 따라나서면서도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뚜렷하게 깨닫지 못함은 소위 이 Kismet이 그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스티븐을 만나게 되는 원인을 브리언 부인(Mrs. Brean)에게서 들은 퓨어포이 부인(Mrs. Purefoy)의 소식에다 두는데 그는 병원을 찾아가서 스티븐을 만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업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스티븐의 진정한 부성적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서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이 블룸-스티

본 루디의 관계가 업과 윤회에 의해 재 탄생되고 그들의 정신적 부자관계를 완성하는 순간이다.

스티븐

중얼거린다.

... 그림자 ... 숲

... 하얀 가슴 ... 침침한 바다.

(그는 양팔을 밖으로 뻗고는 다시 한숨을 쉬고 몸을 새우처럼 꼬부린다. 불륨이 모자와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들고 똑바로 선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 불륨이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꼭 쥐었다 놓았다 한다. 그는 스티븐의 얼굴과 몸을 내려다본다.

불륨

(밤과 다정스레 얘기한다.)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의 불쌍한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 그늘진 숲에서, 깊고 하얀 가슴. 퍼거슨. ...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소녀 어떤 소녀. 정말 그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중얼거린다.) ... 맹세코 나는 어떤 역할 또는 역할들. 어떤 술책 또는 술책들이든 언제나 환영하리라. 언제나 감추며. 결코 폭로하지 않으리라. ... (그는 중얼거린다.) ... 바다의 거친 모래속에 ... 해안으로부터 닻줄로 끌 수 있는 거리에 ... 조수가 물러가는 곳. ... 그리고 다가오는 곳. ...

(묵묵히 생각에 잠긴 채 경계하듯 그는 지키고 서 있다. 비밀의 주인공 같은 태도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검은 벽을 등지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난다. 열한 살 난 귀공자. 유괴당한, 요정이 바뀌친 아이. 이튼복에 유리구두 그리고 조그마한 청동색의 헬멧에,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그는 미소하며 책장에 입맞추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리나지 않게 글을 읽는다.

불륨

(깜짝 놀란 듯, 들리지 않게 부른다.) 루디!

루디

(눈여겨보지 않는 듯, 불륨의 눈을 무심히 들여다보고 계속 책을 읽으며 입 맞추면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섬세한 홍자색 얼굴을 하고 있다. 양복엔 다 이아몬드와 루비 단추가 달려 있다. 왼쪽 빈손에는 바이올렛빛 나비 매듭이 달린 가는 상아 막대를 쥐고 있다. 한 마리의 흰 새끼양이 그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얼굴을 내민다.) (497)

아버지(블룸)의 아들인식은 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이루어짐에 비해 아들(스티븐)의 아버지 인식은 블룸이 그의 인식을 깨워야 이루어진다. 시릴 코놀리(Cyril Connolly)는 이 부분을 『율리시즈』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한다.

*Ulysses*에 있어서의 클라이막스는 블룸이 술에 취해 있는 스티븐을 구해줄 때 느꼈던 친교의 그 한 순간이다. 블룸에게는 죽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스티븐에게는 아직 생존해 있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신적 부성(父性)을 느끼는 이 순간 동안에는 여름날 도시의 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술마시는 블룸과 스티븐, 해충들, 비늘들, 그리고 뱀들이 모두를 제자리를 찾아든다.

(Gilbert 367-8)

우리는 가장 의미 있을 듯한 부자 상봉 장면을 조이스가 왜 이렇게 『율리시즈』에서 가장 난폭한 장면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의 입장에서 볼 때 그에게 가해진 폭력은 개인에 대한 사회 혹은 국가의 잔인성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혼돈스럽고, 어둡고 잔혹한 밤거리의 장면은 곧 블룸에 의해 제공되는 즉각적이고도 확실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스티븐에게의 위기는 블룸으로서는 자신을 부성을 확연히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되며 그가 스티븐의 의식을 깨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의 절정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상봉이 비록 스티븐이 폭력의 희생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극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인간의 선택과 정신적 부자관계의 확인을 블룸을 인간 선행의 대단한 표본으로 만든 점에서는 어느 정도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스티븐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을 때 블룸은 그를 쳐다보면서 “얼굴을 보니 그의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치 블룸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처음 보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어쨌든 스티븐은 블룸의 의식 속에 잃어버린 자식 루디로 변하는데 (metempsychosis) 탄들은 루디가 열한살 이라는 사실은 “재생의 상징”을 상징한다고 말한다(Tindall 214). 여기서 생물학적 부자관계는 완전히 소멸하고 정신적 부자관계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

한편 블룸의 스티븐에 대한 부성애의 발로는 그 진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각하면서도 코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블룸의 태도중의 하나가 그가 스티븐에게 자신의 아내인 몰리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블룸이 스티

본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는 태도는 비교적 실제적임에 비해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네로페”에서 보는 물리의 이 짧은 시인에 대한 생각은 극히 낭만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녀는 심지어 스티븐과 연인관계로까지 상상하는데 만약 물리의 상상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블룸의 기대와는 달리 물리는 또다른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블룸과 스티븐의 부성추구 및 확인의 주제는 대체로 민족적 차이, 그리고 생물학적 및 정신적 부자관계의 뒤엎힘 및 그들이 지닌 지적, 정신적, 격차를 극복하는 세단계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이타카”에서 볼 수 있는 다음의 교리문답식 과정은 이같은 과정을 잘 요약하고 있다.

블룸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그리고 스티븐에 관한 블룸의 생각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블룸의 생각은 그들의 가장 단순한 상호적 형식으로 간추리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는 유대인이라고 그가 생각한다고 그는 생각한 반면,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가 알고 있다고 그는 알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

침묵의 율타리가 제거되었던 것이니. 그들 각자의 아버지들의 혈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블룸은 솜보트헤이, 비엔나, 부다페스트, 밀라노 및 런던을 거쳐 더블린에 온 루돌프 비러그(뒤에 루돌프 블룸으로 바뀜)와 율리우스 히긴즈(본명 카롤리) 및 파니 히긴즈(본명 헤가티)의 차녀(衣次), 엘렌 히긴즈 사이에 태어난 단 하나의 남자 성변화의 상속인임. 스티븐은 코크에서 더블린으로 이주한 사이먼 디덜러스와 리처드 및 크리스티나 고울딩(본명 그리어)의 딸 메리 사이에 태어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장자동질(長子同質)의 상속인임.

그들의 학력은 비슷한 태가 있었는가?

만일 스티븐이 블룸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스티븐은 소학교와 고등학교를 차례로 수료했으리라. 블룸이 스티븐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블룸은 중등교육의 예비과, 초급, 중급, 상급을 거쳐, 왕립대학교에 입학하여 문과1년, 문과 2년 그리고 문학사 과정을 차례로 수료했으리라. (558)

이렇게 사회,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지적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부자관계의 확인은 이 모든 지상의 것을 뛰어넘은 렉스 에페르나 즉 업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이에 의해 블룸은 자신과 육체적 아들 루디와의 결별이 순간적이며 정신적 아들 스티븐의 만남이 영원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스

티븐은 종교적,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불륜으로 대신되는 태초의 부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부성추구와 확인의 관계는 단지 이들 두 사람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상징적 관계이며 이는 업의 영원한 순환의 고립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브라만-아트만의 일치를 향한 귀중한 자아인식인 것이다.

(한국교원대)

인용 문헌

- Blamires, Harry.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Joyce's "Ulysses"*. London: Methuen, 1984.
- Blavatsky, H. P. *Isis Unveiled*. Vol. I & II. Pasadena, CA: Theosophical UP, 1976.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P, 1967.
- Campbell, Bruce F. *Ancient Wisdom Revived: A History of the Theosophical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Coomaraswamy, Ananda K. *Hinduism and Buddhism*. Cambridge: Harvard UP, 1949.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Embree, Ainslie T. *The Hindu Tradition*. New York: Vintage-Random, 1972.
- Gifford, Don. *Notes for Ulysses: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Dutton, 1974.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A Study*. New York: Vintage-Random, 1958.
- Hart, Clive, and David Hayman, ed. *James Joyce's "Ulysses": A Critical Essay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 Hayman, David.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Classics, 1974.
- _____. *Ulysses*. New York: Vintage-Random, 1961.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s*, Ed. Richard Ellmann. New York: A Viking Press, 1975.
- Kenner, Hugh. *Ulysses*. London: Allen, 1980.
- _____. *Dublin's Joyce*. Boston: Beacon, 1962.
- Tindall, W. Y.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1984.
- Time* (Vol. 151 No. 20) 1998. 6.22
- 김종건 (역). 『율리시즈』 1, 2, 3, 4 서울: 범우사, 1997. (본문속의 작품 번역은 이 책에 의한 것임)

Abstract

The Karma and Reincarnation of Buddhism
in James Joyce's *Ulysses*

Park Seong Soo

This paper firstly aimed to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the speeches and behaviours of the characters in James Joyce's *Ulysses*, the law of karma and the theory of reincarnation of Buddhism. The next goal was to show how the relevance deepened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Joyce's *Ulysses* and how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the artistic perfection in Joyce's literary world. Lastly to clarify how the relevance makes a serio-comic effect which Joyce ultimately wanted to create in *Ulysses*.

The law of karma and the theory of reincarnation are related to the idea that all life is continuous, that all beings are interconnected. This spirit of interconnectedness offers Stephen and Bloom a spiritual connection with Ultimate Reality. In *Ulysses*, the application of karma and reincarnation, because of the enormous breadth of their scope, is expressed in the theme of paternity. The father-son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haracters, a major and problematic theme, can be explained by recognizing the use of these two principles.

Conclusively speaking, the pursuit and confirmation of paternity is a symbolic behavior which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connection between Stephen and Bloom, but also to all human beings existing in the same situation. It is also an important behavior of self-awareness which can be emancipated from the cycle of reincarnation and can reach the identity of Atman and Brahman.